절제하고 복종케 하라!(도약 26)
본문: 고전 9:24-27

옛날 고린도에서는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큰 이스미안(Isthmian)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는 2 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었는데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들은 최소한 10 개월 동안 예비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경기 시작 30 일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 엄격한 훈련에 임했습니다. 결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고, 단호한 다이어트와 식이요법의 습관을 길러야 했습니다. 정말 고되고 금욕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광경을 보다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의미 깊은 교훈을 본문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일이면 시들어 없어질 나뭇잎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고되고 엄격한 훈련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헬, Στέφανος, 스텝하노스, 8 회 사용)을 받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부단한 자기훈련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또한 하늘의 상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상당한 자기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훈련을 통한 믿음의 도약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첫째는 절제입니다
본문 25 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2 회 사용된 "절제하다"라고 번역되는 "헬, ἐγκρατεύομαι, 엥크라튜오마이"은 굉장히 강한 동사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oes into strict training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훈련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령, 자신의 기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도 기꺼이 해내어야 합니다(잠 25:28). 자신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잠 21:23). 자신의 반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초연하는 것은 대단한 덕목입니다(잠 19:11).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잠 16:32). 자신의 스케쥴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고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전 6:19). 그러므로 성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롬 8:13).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인일수록 자신의 기분, 말, 반응, 스케쥴, 돈, 그리고 자신의 몸과 건강 관리를 잘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헬, ἐγκρατεύομαι, 엥크라튜오마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엔(ἐν, 안에) + 크라토스(κράτος, 힘) 즉, “힘 안에”가 원어적 뜻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주님의 “힘 안에서” 성령님의 “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자신을 다스리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절제란 “self-control”, “자기 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절” God-control 입니다. “예수님 조절” Jesus-control 입니다. “성령님 조절” The Holy Spirit-control 입니다(롬 8:13).
“성경적 절제”는 절대 금욕이 아닙니다. 성경적 절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절제는 또한 내가 수고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 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이기도 합니다(갈 5:23). 나아가 절제는 자신이나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8 가지 신성, 즉 신적 성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벧후 1:6).

우리 모두 이처럼 내가 금욕하며 내 힘으로 조절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안에서 조절되도록 성령충만 훈련 되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절제를 통해 믿음의 도약이 이뤄지시길 축원합니다.

2. 둘째로, 자기를 이기는 자(Self conqueror)가 되는 것입니다
1)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기 전에 헛된 노력의 신앙생활을 비유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본문 26 절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바울은 먼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확실한 푯대를 향해 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정해진 목표를 정확히 맞추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안되면 쉽게 지쳐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2)사도 바울은 확실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27 절에서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은 헬라어로 노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단 1 회 사용된 단어(δουλαγωγέω, 둘라고게오)로 “종처럼 다루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를 굴복시켜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사상, 나의 경험과 경력을 노예로 만든다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하며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내적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시길 간구합니다.
실례로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죽음을 택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고전 15:31).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본받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둘째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딤전 4:8). 이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가요?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입니다.

다윗이 그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언제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많은 상처와 아픔, 쓰라린 고통, 배신감 등을 오직 말씀 묵상과 밤을 지새우는 눈물 젖은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위대한 성왕이었지만 눈물로 베개와 담요까지 다 적시는 자기 정복의 싸움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었고, 자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언제나 습관적으로 틈을 내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막 1:35). 이 같은 매일의 습관적인 작은 기도의 생활이, 그 놀라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눅 22:39-44).
오늘 우리 모두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를 죽이며 이기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됩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케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성령충만함을 통해 성취되는 절제입니다.
둘째, 자기를 잘 이기는 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같이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시켜, 신실한 신앙인으로 도약하십시다. 그리하여 썩지 않는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